



김효신의 스페인 여행기
**스페인,
더 멀리 저 너머로**

37. 마드리드 마지막 밤

관광버스가 마드리드에 도착한 것은 6시가 넘어서였다. 날은 어두워졌고 기온은 푹 떨어져 무척 추웠다. 배가 고파 저녁 식사를 해야 했지만 핸드폰을 충전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호텔로 돌아가기로 했다. 플라자 데 에스파냐 지하철역에서 10번 선을 타고 우리 호텔 근처 알론소 마르티네즈역까지 두 정거장만 가면 된다.

호텔 근처 지하철역에 내린 것은 6시 30분쯤이었다. 어둠이 내린 거리의 건물들과 가로등에 모두 불이 들어와 무척 아름다웠다. 마드리드 매력의 큰 부분은 건축 스타일이라고 감히 말한다. 호텔로 가는 길목에 전에 미처 보지 못한 건물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 입구에 한글로 된 조그만 팻말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 보았다. 한국문화원이다. 바로 위에는 핀란드 대사관 팻말이 붙어 있었고, 왼쪽에는 아이티 대사관과 카타르 대사관 팻말이 붙어 있었다. 어떻게 우리 호텔은 이런 정부 건물, 대사관, 문화원 등이 자리한 곳에 들어서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호텔에 들어와 핸드폰을 충전하면서 잠시 쉬었다. 따뜻한 방에 들어 오니까 몸이 노곤해지면서 밖에 나가기가 싫어졌다. 하지만 하루 종일 별로 먹은 것이 없으니 저녁은 꼭 먹어야 한다. 어디서 저녁을 먹을까 궁리한 끝에 호텔 근처에 있는 엘 코르테 잉글레스(El Corte Ingles) 백화점에 가보기로 했다. 엘 코르테 잉글레스 백화점은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백화점이라고 해서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고, 거기 가면 실내 푸드 코트도 있고 타파스 바도 있다고 한다. 호텔에서 걸어가면 8분 거리였다.

다시 옷을 단단히 입고 두터운 목도리까지 두르고 호텔을 나섰다. 벌써 8시가 넘어 완전히 깜깜한 밤이다. 백화점까지는 금방 걸어갔다. 입구에 불을 환히 밝힌 회전 목마

가 돌아가고 있어서 뭔가 환상적인 분위기가 흐른다. 백화점 안은 어느 백화점과 다를 바 없었다. 우리는 너무 배가 고파서 쇼핑 생각은 전혀 나지 않았고 빨리 먹고 싶은 생각 뿐이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푸드 코트는 벌써 문을 닫았고, 타파스 바는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차례가 되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지체없이 백화점에서 나왔다.

츄고 지친 우리가 호텔 근처에서 찾아간 곳은 '사가르디(Sagardi)'라는 전통 바스크 요리 전문 레스토랑이었다. 바스크는 스페인 북부에 프랑스와 인접해 있는 자치제 영토로 스페인과 프랑스의 문화와 전통이 혼합된 독특한 지역이다. 바스크 음식 또한 유명해서 한번은 먹어 보고 싶었던 터라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레스토랑은 텅 비어 있었다.

스페인 사람들은 저녁 식사를 9시 쯤 되어야 먹는다고 하니 우리가 너무 일찍 온 것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그 시각 유일한 손님이었던 우리는 커다란 레스토랑 한가운데 앉아 극진한 서비스를 받았다. 바스크 요리를 잘 모르니까 추천을 받아서 주문했다. 바스크 소시지와 크로켓, 손으로 찐다고 하는 바스크 특산 고추 요리(까사 루초에서 맛있게 먹었던 고추 요리 빠미엔토스 빠드론이 생각나서 주문해 보았다). 상추 샐러드(파란 상추가 반, 양파가 반인데 싱싱하고 맛있었다), 그리고 메인으로는 생선을 선택했다. 바스크는 고기 요리로 유명하다고 했지만 우리는 어쩐지 고기가 내키지 않아 생선을 먹기로 했다. 나온 것을 보니 올리브 유를 뿌려 맛있게 구워 낸 커다란 낚치였다.

손님들이 없어서인지 종업원들은 아예 우리 테이블 옆에 대기하면서 서비스를 했다. 끊임없이 와인을 부어 주고, 생선살도 다 발라주고, 빵을 먹다가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재빨리 치워준다. 우리는 기분이 좋아져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며 마드리드의 마지막 밤 바스크 스타일 저녁식사를 느긋하게 즐겼다. 바스크 소시지와 바스크 특산 고추 요리 외에는 그다지 특별한 점이 없어 보였지만 서비스가 워낙 좋아서 만족했다(나중에 알아 보니 '사가르디'는 큰 체인점 아였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에는 가는 곳마다 눈에 띄었다). 나중에 들어오기 시작한 저녁 손님들은 우리가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쯤 레스토랑 안을 꽉 채우고 있었다.

메디케어 aga 처방약보험

치과: 본인이 원하시는 치과의사 선택과 전반적인 치과 다 커버되는 우대플랜 (\$2000/yr)

- ★ 올해 65세가 되시는 분 (메디케어 수혜자)
- ★ 시니어 우대플랜 - Part C (A+B+D)
- ★ Extra Help (처방약 보조)가 필요하신 분
- ★ Part B 보조 (\$125/mo.) (\$148.50-\$125 = \$23.50 만 냄)
- ★ Flex Card (\$500), Grocery (\$50/mo), OTC (비처방약커버) 안경, 운동, 침술, 치과, 보청기, 발치료, 교통편제공
- ★ 해외여행 중 응급치료, 등등 (회사마다 조금씩 다름)
- ★ 현재 플랜을 바꾸고 싶으신 분
- ★ 타주 혹은 다른 카운티에서 이사 오신 분
- ★ Medicare와 Medicaid (메디칼)을 같이 갖고 계신 분
- ★ Supplement Plan (PPO)
- ★ 의사나 병원 선택의 자유

전문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로 모든회사를 취급하여 손님께 맞는 적합한 선택으로 비교해 드리고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Sally Kim Licensed Insurance Agent
(714)714-6393 License No. 0B07129
Sklm8588@yahoo.com

땡큐 THANK YOU CHICKEN

NEW **찜닭** 커플사이즈 \$26.99
패밀리사이즈 \$39.99

순살치킨 후라이드/양념/간장 \$19.99

콤보스페셜

A	찜닭 + 우동	\$36	\$48
B	찜닭 + 콘치즈	\$36	\$48
C	찜닭 + 모듬튀김	\$39	\$51
D	찜닭 + 오징어	\$42	\$54
E	찜닭 + 순살치킨	\$43	\$55
F	2치킨	\$36	
G	3치킨	\$54	

(714) 278-1090 화~일 3pm-8pm
매주 월요일 휴무
2009 W. Commonwealth Ave. #A, Fullerton, CA 92833

TANG
순대국 돼지국밥 전문점

설렁탕 / 도가니탕
감자탕 / 선지해장국
뚝배기 불고기
순대접시 / 순대전골
순대볶음 / 감자탕 전골

설렁탕 육수 판매 \$6.99

돼지국밥 갈비탕 육개장
족발 보쌈 감자탕

부ENA팩점 Open: 10am~9pm **플러튼 본점** Open: 10am~10pm

714. 266. 0309 **714. 680. 9550**

7231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1937 W. Malvern Ave. Fullerton, CA 92833